

1980년대 북한소설 연구*

- 『1980년대 단편선』을 중심으로-

노상래**

|| 차례 ||

1. 서론
2. 노동생산성 향상 및 숨은 영웅 찾기의 문학적 형상화 배경
3. 숨은 영웅 찾기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 1) 성실한 노동자상의 전형화
 - 2) 관료주의 몰아내기
 - 3) 당원으로 거듭나기
 - 4) 사랑과 혁명의 어우러짐
 - 5) 도덕으로 무장된 당의 ‘명령’
 - 6) 자애로운 어머니, 슈퍼우먼 되기
4. 결론

【국문초록】

1980년대 북한문학은 개인우상화로 일관하던 1970년대 문학이나 고난의 행군시대로 표상되던 1990년대 문학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숨은 영웅, 심오한 철학적, 도식주의의 극복’ 등을 목표로 한 1980년대 북한문학은 이전 소설인 항일 혁명이라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영웅적 인물에 비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평범한 영웅들, 즉 숨은 영웅들이 주인공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현실생활을 창작의 공간으로 회복하기 위해 애쓰던 1980년대 북한문학에서 숨은 영웅의 창출은 북한문학이 보여준 하나의 틈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런 새로움도 상당수의 소설들에서 당의 이념이나 지침이 소설 전체를 실루

* 이 논문은 2010년도 영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엣처럼 감싸고 있어서 그 가치를 갹아먹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 시기 북한문학에는 감미로운 사랑의 서사가 당, 수령, 명령, 충성 등과 같은 무거운 단어들의 기능적·교조적 측면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이는 ‘사회 현실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1980년대 북한소설이 성취한 결과인 셈이다. 이런 감수성 또한 1980년대 북한문학이 도달한 균열의 조짐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아울러 몇몇 작품들에서 보여준 뛰어난 서정적 묘사는 북한문학이 보여준 감수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소설적 장치였다.

하지만 북한문학의 이런 틈새 확인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북한소설 또한 ‘장군님’의 손바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교조적 문학의 범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 북한소설이 역사주제의 문학이 노정하던 도식주의를 일정 부분 견어내는데 성공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그들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건 ‘숨은 영웅’이라는 새로운 도식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이상 또 다른 도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주제어 : 숨은 영웅, 수령형상화문학, 1980년대 북한소설, 선군(先軍)시대, 관료주의, 당원, 명령, 어머니

1. 서론

개인의 이상화로 획일화되던 1970년대 소설과는 달리 1980년대 북한소설은 다양한 소재의 발굴로 일상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 ‘현실생활을 창작의 공간으로 회복한다’¹⁾는 의미의 ‘사회주의 현실주제의 문학’은 1980년대 북한문학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사회적 문제의 예리성, 시대정신의 대변자로서의 새 인간 창조, 시대적 미감에 맞는 구성형식의 개성적 탐구’²⁾를 요구하는 ‘사회주의 현실주제의 문학’은 이전의 ‘역사주제의

1) 김한식, 『북한소설에서 현실모순의 형상화 문제』,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 1995, 469쪽.

2) 장흥, 『사회주의 현실주제의 단편소설과 시대정신』, 『조선문학』, 1983. 1, 위의 글,

문학'이 노정하고 있던 도식주의를 일정 부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 작업이 중지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문학사에서 1980년대는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과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1961~)문학' 시대에 해당된다.³⁾ 그리고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시대 혹은 '선군(先軍)시대'로 불리는 김정일 시대의 문학을 대표하는 개념인 '선군혁명문학'시대로 이행되는 징검다리 시대이기도 하다. 나아가 선군혁명문학의 종자가 '수령영생문학' '수령추모문학' '단군문학' '태양(민족)문학' 등으로 표현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일성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정치적 구호 아래서 체제의 위기, 즉 고난의 시대를 견디어 내기 위해 복속한 문학인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대 문학과 1980년대 북한문학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확연히 구분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선군혁명문학의 시대에도 그러하지만 그 이전에도 김정일이 북한문학을 실질적으로 관장해왔다는 점이다. 1967년에 확립된 주체문학은 1964년 당 중앙위원회에서 문학예술 분야를 직접 관장한 김정일의 작품이다. 그리고 1980년대 이전까지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문학의 주요 관심사는 수령형상화로 수렴되었다. 곧 주체문학은 큰 범주에서 이야기하면 수령형상화문학인 셈이다. 다음의 인용은 이런 사실을 방증하는 좋은 사례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있고 격조높게 형상화

469쪽 재인용.

3) 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 II, 사회과학출판사, 1986, 인동, 1988, 4쪽. 이 책에서는 이전의 북한 문학을 '항일혁명투쟁시기(1926. 10~1945.8)문학' '평화적 건설시기(1945.8~1950.6)문학'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1950.6~1953.7)문학'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투쟁시기(1953.7~1960)문학'으로 구분하고 있다.

《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첫째가는 원칙적요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창조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첫째가는 원칙적요구로 내세운 우리 당은 수령의 형상창조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심오한 해명에 기초하여 수령의 형상창조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었다.⁴⁾(강조 : 원문)

김일성의 ‘영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 있고 격조 높게 형상하는 것’이 목적인 주체문학의 정립 이후 사실 북한 문학은 주체라는 전략 아래 여러 가지 전술적인 문예이론이 수립, 수정, 보완, 확충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북한의 문예이론은 “수령형상 창조를 통한 ‘주체문학’의 유지와, 문학의 도식성 및 편협한 유산관에 대한 비판을 통한 ‘문학의 확충’”이라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⁵⁾ 1980년대 이전의 북한문학이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주로 주체문학에 의한 문학창작 경향”⁶⁾이 짙었다면 1980년대 북한문학은 ‘사회 현실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문학 영역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의 재고’를 고민하기 시작한 ‘문학의 확충’ 시기였던 것이다.⁷⁾ 북한문학사에서 1980년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문학의 확충’은 수령형상화 문학으로 점철되던 6, 70년대 북한문학의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따라서 문예미학적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도식성은 죽음’이라는 구호 아래 1980년대 북한문학은 문학사의 수정과 창작 이론의 수정을 추동한다. 일례로 1978년부터 1981년까지 세 차례에

4) 위의 책, 281쪽.

5) 김윤영,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혁명문학’의 실체』, 북한연구소, 『북한』 360호, 2001, 163쪽.

6) 위의 글, 163쪽.

7) 위의 글, 164쪽.

걸쳐 발간된 『조선문학사』의 경우 이인직, 이광수 등은 제거되고 없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의 북한문학사에서는 이인직이 살아나고 이광수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내려지고 있어 객관성을 상당히 유지하려 애쓴 흔적을 엿볼 수 있다.⁸⁾ 이는 1980년대 북한사회 내부의 변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나아가 소설의 주제적인 측면은 물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이 시기의 문학은 눈여겨 볼 대목이 여럿 있다.

이 논문은 1980년대에 발표된 북한소설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학은 ‘시대정신의 반영’⁹⁾이라는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문학에서 80년대 북한소설은 어떤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는지 주목하려고 한다. 하지만 북한에서 발간한 ‘단편집’을 텍스트로 삼았기에 이 텍스트를 편찬한 북한의 정치적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파편적일 수 있겠으나 틈새를 보려고 한다. 이 작업을 통해 주체사상에 편승한 항일혁명문학의 구체화로 일관되던 북한문학에서 새로운 양태의 문학 가능성을 들여다보려 한다.

북한에서는 1980년 1월 7일에 개최된 제3차 조선작가동맹대회에 ‘당 중앙’의 이름으로 김정일이 보낸 서한-『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 식견과 창작적 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자』-에 의해 1980년대의 북한문단의 문학예술 방향이 결정되었다. 그 지도 지침에 따른 문학의 방향은 ‘숨은 영웅, 심오한 철학적, 도식주의의 극복’¹⁰⁾ 등으로 나타났다. 『1980

8) 1980년에 발간된 『조선문학사』(박종원·최택호·류만,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는 이인직과 이광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러나 1986년에 발간된 『조선문학개관』 I (정홍교·박종원, 사회과학출판사, 1986, 인동, 1988)에서는 이광수 문학을 ‘부르조아 계몽문학으로서의 《신문학》’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무정』, 『개척자』 등을 예로 들어 이광수 문학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어 종래의 부정적인 측면 일변도에서 벗어나 균형감을 유지하려 애쓴 흔적을 엿볼 수 있다.

9) 『조선문학』, 2001년 제1호, 5쪽.

년대 단편선』(문예출판사, 1990)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만들어낸 결산물인 셈이다.

『1980년대 단편선』에는 총 17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¹¹⁾ 이 작품들은 큰 틀에서 “영웅적 인물의 형상화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하고 진실한 인물을 그리는 ‘숨은 영웅’ 찾기”¹²⁾로 범주화할 수 있겠으나, 작품을 면밀히 검토하면 다시 몇 가지 주제로 세분할 수 있다.¹³⁾ 첫째, 수령 형상화 및 김일성 가계 형상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 단편집에서는 김일성에 관련된 것이 1편¹⁴⁾, 김정일에 관련된 것이 2편¹⁵⁾, 김정숙에 관련된 것이 1편¹⁶⁾, 도합 4편이 실렸다. 김정일과 관련된 작품이 2편이나 실린 것은 그가 북한

10) 김병진, 『해방 이후 북한 소설사』, 김종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2, 청동거울, 1999, 71쪽.

11) 그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영원』(안동춘, 1987), 『대지』(현승걸, 1985), 『생의 축복』(김정민, 1985), 『시인의 소원』(리종렬, 1982), 『덕흥나그네』(정창운, 1981), 『원앙유정』(박종상, 1983), 『생명』(백남룡, 1985), 『청년개척자의 수기』, 김관일, 1985), 『조국』(리명균, 1986), 『하늘과 땅』(김영길, 1986), 『입당』(설진기, 1986), 『칼도마소리』(안홍윤, 1987), 『내 고향의 작은 다리』(로정범, 1987), 『명령』(한웅빈, 1988), 『고향의 모습』(로정범, 1986), 『어제도 오늘도』(백철수, 1989), 『마감사람들』(김창욱, 1989)

12) 김종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 청동거울, 1999, 34쪽.

13) 김재용은 80년대 북한 문학 전반에 대해 검토하면서 북한문학을 첫째, 해방 후 혁명투쟁을 형상화한 문학, 둘째, 역사 주제의 문학, 셋째, 조국 통일 주제의 작품, 넷째, 사회주의 현 주제의 작품 등 4가지 주제로 분류한 바 있다.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2004, 258-259쪽.) 그리고 남석순은 1980년대 전반기 북한소설을 주제와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영도지주제의 소설, 역사주제의 소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소설, 노동의식 고취주제의 소설, 고전출판, 번역출판 등 6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남석순, 『북한 소설문학의 출판수용 양상 연구-1980년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회, 『한국출판학연구』 44호, 2002, 173쪽.) 그런데 남석순의 경우 출판된 소설을 모두 읽은 후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제, 소설,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14) 안동춘, 『영원』

15) 현승걸의 『대지』와 김정민의 『생의 축복』

16) 리종렬, 『시인의 소원』

의 문예정책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점과 후계 체제의 공고화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¹⁷⁾ 둘째, 노동생산성 향상 및 숨은 영웅 찾기¹⁸⁾, 셋째, 남녀 간 사랑의 문제¹⁹⁾, 넷째, 조국통일과 관련된 것 등이다.²⁰⁾

본고에서는 이 중 ‘노동생산성 향상 및 숨은 영웅찾기’와 관련된 작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1980년대 북한문학의 한 단면과 일상의 삶이 문학 속에 수렴되는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주제보다도 ‘숨은 영웅, 심오한 철학적, 도식주의의 극복’ 문제가 잘 수렴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 노동생산성 향상 및 숨은 영웅 찾기의 문학적 형상화 배경

1970년대 북한문예는 북한에서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 일컬어지는 『피 바다』 『한 자위단의 운명』 『꽃피는 처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술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과정의 성과물들로 축적되고 있었다. 따라서 그 내용은 김일성에 대한 “끝없는 숭고한 충성심을 가지고” 김일성의 “영광찬란한 혁명 역사와 숭고한 공산주의적 품모, 불멸의 혁명 업적, 혁명적 사업 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품을 전면적으로 형상하는”²¹⁾ 것들로 채워졌었다.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17) 정영철(『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 1967~1982』,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1, 303쪽)에 따르면 1980년대 북한의 내치는 사실상 김정일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8) 이 주제에 드는 작품은 무려 11편이다. 1980년대 북한 문예의 최대 관심은 노동 생산성 향상 및 숨은 영웅찾기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19) 이 주제는 딱히 어느 하나의 작품을 꼬집어 말할 수 없다. 다만 여러 작품에 사랑(연애)의 에피소드 산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정법의 「내 고향의 작은 다리」는 1980년대 북한식 사랑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다.

20) 박종상의 「원앙유정」과 리명균의 「조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980년대 북한 문예는 조용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이전 소설과의 차이이다.

북한에서 숨은 영웅 찾기는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공산주의적 인간의 전형을 ‘숨은 영웅’으로 규정하면서 ‘숨은 영웅의 모범 따라 배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1980년대 북한문학의 중요한 주제로 설정된다.²²⁾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서의 숨은 영웅찾기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밀착되어 있다. 북한은 1970년대 불어닥친 석유파동과 부등가교환으로 대외채무액이 급증하게 되자 외채를 동결시키고 채무불이행국으로 전락하면서 1970년대 개방정책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²³⁾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과탄에 빠진 북한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자력갱생이 제시된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경제위기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일부 기계설비를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쓰다보니 세계적으로 원유값이 올라갔을 때 기계설비값이 올라 그 영향을 좀 받았을 뿐입니다.……우리는 원유를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쓰기 때문에 원유를 많이 쓰는 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 우리나라의 원료에 의거하는 공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²⁴⁾

자력갱생경제노선의 성공은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고화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김정일 후계 구도의 안정적 구축과 북한 경제의 안정적 발전은 새로운 시

21) 『조선문학사』(1959-1975),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234쪽.

22)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319쪽.

23) 김귀옥, 『1980년대 북한 사회의 발전과 좌절의 기로』, 경남대 북학대학원, 『현대북한연구』 7권 1호, 2004, 89~90쪽.

24) 김일성,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1983. 6), 『김일성저작선집』9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부, 1987, 170쪽, 김귀옥, 위의 논문, 91쪽 재인용.

대의 안착을 위해서 필수적이었다. 문학에서의 숨은 영웅찾기는 바로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문학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숨은 영웅 찾기의 문학적 형상화는 거기에 걸맞는 형식미의 수반을 요구한다. 숨은 영웅의 고상한 품모와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왕의 도식주의나 무갈등의 극복이 담보되어야 했다. 이런 형식의 차이는 1980년대 북한문학이 거둔 일정한 성과이다. 하지만 무갈등의 극복이라고 해서 80년대 북한소설에 나타나는 갈등이 ‘화해할 수 없을 정도의 적대적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다’²⁵⁾는 김한식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 소설이 가지고 있는 갈등 양상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제한된 갈등 양상이 80년대 북한소설에서 그려지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리고 숨은 영웅 찾기는 현실 속의 문제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주체문학에 바탕한 항일혁명투쟁의 형상화로 기울었던 북한문학이 생활문화 속에서 그 소재를 찾아냄으로써 소재의 다양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제공한다. 아울러 숨은 영웅 찾기는 주체적 인간의 전형 창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의 영웅적 혁명투사의 모습에서 벗어나 실생활에서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노동력 향상에 이바지한 평범한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하지만 이처럼 길에 드러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 형상화된 숨은 영웅들은 열렬한 공산주의자이며, 김일성 가계에 한없는 충성을 기꺼이 바치는 <김일성의 인민>으로서의 <숨은> 영웅이라는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25)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출판, 1995, 472쪽.

3. 숨은 영웅 찾기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1) 성실한 노동자상의 전형화

정창윤의 『덕홍나그네』는 전쟁 전에 탄광에서 자재인수원으로 일하던 주인공이 ‘집 떠나 다니기가 힘들어서’ 전쟁 후에는 그 일을 그만두려 했지만 탄광의 자재 사정을 ‘나’ 이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속 자재인수원으로 일하면서 겪게 된 이야기가 서사의 골격이다. ‘나’는 자재 과장의 명령으로 전쟁 전에 숨겨놓은 ‘동발목’을 실어오기 위해 ‘산서면’으로 떠난다. 거기서 묵게 된 객주집에는 주인 내외와 나를 제외한 두 사람의 객이 더 있었다. 하나는 ‘덕홍나그네’라 불리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사리원선생’이다. 이 소설은 ‘덕홍나그네’와 ‘사리원선생’의 대비를 통해 북한문학에서 말하는 80년대 ‘숨은 영웅’은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두 사람의 외양 비교를 통해 이 소설의 복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덕홍나그네는 ‘색날은 검정작업복에 진창발림을 한 로동화를 신고 다니는 덕홍기계공장 로동자’²⁶⁾다. 이 소설에서 덕홍나그네를 감싸고 있는 단어는 ‘기계기름’, ‘먼지’, ‘땀’, ‘검정모자’, ‘삼’, ‘곡괭이’ 등이며, 수식어나 서술어들은 ‘찌들어붙다’, ‘깡뿔하다’²⁷⁾, ‘(몸놀림이) 가볍다’, ‘(얼굴이) 구릿빛이다’ 등이며, ‘사리원선생’을 포장하고 있는 단어는 ‘똥똥보’, ‘장사군’, ‘홍콩수입제 회생 양복’, ‘흰 와이셔츠’ ‘토색구두’ 등이며, 수식어나 서술어는 ‘(돈) 잘 쓰다’, ‘(푸집²⁸⁾) 좋다’, ‘점잖다’, ‘반들거리다’, ‘(방구석에서) 뒹굴다’, ‘(주인여편네와) 수군덕거리다’ 등이다. 이런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26) 정창윤, 『덕홍나그네』, 93쪽.

27) 몸집이나 생김새가 여윈 듯 하고 칼칼하다는 북한말.

28) 남에게 인정이나 불임성, 포용성 따위를 가지고 대함. 또는 그런 태도나 상대를 지칭하는 말.

이 이 소설에서 ‘덕홍나그네’는 본받을만한 긍정적 인물로, ‘사리원선생’은 비난받아 마땅한 부정적 ‘선생’으로 그려지며, 새것과 낡은 것의 대립 구도 속에서 지향해 가야 할 정신적 사표로 ‘덕홍나그네’는 자연스레 부각된다.

이 소설은 전쟁이 끝나고 두 달 뒤, 전후 복구 사업에 여념이 없는 때, 반 정도 남아 있는 ‘나무무지’를 실어 탄광으로 보내던 ‘나’의 시선에 비쳐진 ‘덕홍나그네’와 ‘사리원선생’의 일상에 대한 보고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소설에서 ‘선생’으로 지칭되는 사나이는 전후복구를 위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악의 화신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선생’이 묵고 있는 객주집 부부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인물이다. 소설 속에서 이들은 공생관계를 이루며, 그 삶의 방식은 자본주의적이다. ‘지독한 노랭이’인 주인은 ‘손님따라 철저하게 대접을 달리하는’ 자본주의의 실천자이다. 그런 부부를 이용하여 은근히 이제에 밝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사리원선생의 처세술은 빼어나다. 이런 공생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삶의 진면목을 묵도한 ‘나’ 역시 그런 공생관계에 한 발을 걸치게 된다. 광산으로 보내야 할 동발목 중에서 골고 미끈한 나무들을 여인숙집 수리용으로 떼여주고 마는 것이다. 다음 날부터 주인 여편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당연했다. 다만 ‘덕홍나그네’만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공생관계를 그리고 있는 작가의 의도는 분명하다. 특히 객주집 부부에 대해 ‘사리원장사군에게 돈푼이나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뜯어먹느라고 어찌나 알랑대는지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도 모르게 몰래 몰들여가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대한 거부감과 사회주의에 대한 찬양이 이 소설 전체를 관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도가 고스란히 삼투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덕홍나그네’이다.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는 모든 인민이 본받아야 할 전형으로 우뚝 선다.

‘덕홍나그네’가 매일 하는 일은 후퇴 시기 소개하다가 파묻어버린 모터

를 다시 찾아 덕흥기계공장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런 ‘덕흥나그네’에게 ‘사리원선생’의 자본의 덫은 교묘하게 거미줄 치게 된다. 사리원선생은 모터 몇 개를 빼돌려 자신에게 팔 것을 부탁한다. 그러나 덕흥나그네는 공장을 복구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동기를 내놓을 수 없다고 거절한다. 이런 장면을 목격한 ‘나’의 판단은 이 소설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선명히 부각시킨다.

나는 그들의 흥정판이 어떻게 되는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이렇게 깨지는 것을 보고 가볍게 혀를 찼다.

덕흥나그네가 너무 고지식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후일에 그 누가 따지고들 것도 아닌 매물물자요, 장부에도 기입되어있지 않는 전신행불설비들인데 무엇 때문에 저처럼 깍쟁이짓을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소형전동기 한 두 개면 배고픔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덕흥나그네가 앞뒤가 막혀도 이만저만이 아니게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²⁹⁾

이미 퇴폐적이고 자본주의적 사고로 물들어가는 ‘나’의 시선에서 바라본 ‘덕흥나그네’는 앞뒤가 꼭 막힌 고지식한 사람일 뿐이다. 이런 세간의 시선에 대해 ‘덕흥나그네’는 분명한 자신의 철학이 있다. ‘전쟁 3년동안’ ‘벌레’ 같은 사람들은 살아남고 ‘아까운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의 내면에는 자본의 논리에 물들어 가는 사람들에 대한 울분이 자리하고 있다. 그 울분은 ‘전쟁을 겪고 난 나라가 몹시 어려움을 겪는 때에’ ‘제 살 구멍이나 찾는’ 자들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어떠한 난관도 뚫고 나가야 하며 새 시대에 맞는 정치·도덕적 사고로 무장해야 한다는 고도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덕흥나그네’의 영웅적 모습은 전후복구시기에 사회주의 재건설을 위해 매진하던 1950년대 북한소설, 즉 윤

29) 정창윤, 앞의 소설, 97쪽.

세중의 『시련 속에서』, 이북명의 『맹세』, 유항림의 『직맹반장』 등의 작품에서 이미 그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덕홍나그네는 숨겨놓은 모터케잍을 들어 올리다 상처를 입고 파상풍에 걸리고 만다. 불행히도 병이 깊어 그는 죽음을 맞게 된다.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나’에게 그는 “당신은 국가물자를 가지고 더 <선심>을 쓰지 마오”³⁰⁾라는 유언 한 마디를 남겨 놓는다. ‘선심’이란 말은 송곳이 되어 ‘나’의 평생의 삶을 간섭한다. ‘나’는 다시는 ‘선심’을 쓰는 따위의 짓은 하지 않게 된다. ‘덕홍나그네’는 국가의 소중한 물자를 아끼고 지켜야 한다는 훌륭한 교훈을 남기고 ‘나그네’처럼 홀연히 떠나간다. 이 소설에서 ‘덕홍나그네’의 죽음은 완벽한 노동자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악전고투하는 로동계급의 영웅적 형상’³¹⁾의 전형으로 완성된다. 진정한 노동자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려는 강한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비록 사소하다 할지라도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교술적 서정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독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선명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국가로부터 년로보조금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살고 있다. 달뜨는 저녁에, 꽃피는 아침에 생각느니 나라의 고마움뿐이다. 위대한 수령님 계시는 오늘의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있고 그 제도가 있음으로 하여 나의 행복한 말년이 있다”³²⁾라는 사족은 이 소설 창작 의도를 이데올로기 속으로 포박하고 만다. 숨은 영웅은 이처럼 이데올로기 속에서 꼭두각시로 체현되고 말았다. 사족으로 말미암아 이 소설이 노동자가 중심에 놓인 선전문학으로 전략함으로써 ‘덕홍나그네’의 주체적 인간형에 대한 긍정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0년대 북한문학이 이전의 도식성

30) 위의 소설, 105쪽.

31)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현대문학편』, 인동, 1988, 314쪽.

32) 정창윤, 앞의 소설, 106쪽.

에서 비껴갈 수 없었다는 것은 80년대 북한문학의 한계이기도 하다.³³⁾

2) 관료주의 몰아내기

백남룡의 『생명』은 숨은 영웅 찾기를 관료주의와 관련지어 조명하고 있다. 특히 이 소설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병폐인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을 중요한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내부 비판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북한은 해방 후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뿌리를 내리고 지도자가 세습되면서 기득권을 가진 간부들에 의해 사회가 정체되어 갔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는 묵시적인 제도화 성격을 띠게 되면서 북한의 정체성을 추동하였다. 이에 북한은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여 전사회적으로 3대혁명소조운동을 시도한다. 3대혁명소조의 지방 및 각 생산단위로의 파견은 당시 북한 사회에 만연하던 정치적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진행되었는데,³⁴⁾ 이 운동의 주요 목표가 바로 관료주의에 대한 시정이었다.

관료주의 비판과 숨은 영웅 찾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기획된 『생명』은 대학학장인 ‘리석훈’과 늘 거리를 쓰고 있는 공원관리인이 만들어 내는 긴장이 소설을 주도하고 있다. 이 두 주인공의 역할은 잘 분담되어 있다. 관료주의에 대한 현실 고발은 ‘석훈’이, 숨은 영웅의 훌륭한 모범은 공원관리인이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리석훈’은 전쟁 때 입은 상처로 장천공 수술을 받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상처가 도져 다시 장불통증을 일으켜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게 된다. 아무도 수술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데, 시병원 복부외과 과장이 나서서 그 수술을 집도한다. 수술은

33) 이 외에도 간척지의 이야기를 다룬 김관일의 『청년개척자의 수기』, 광산 개발과 관련한 김창욱의 『마감사람들』 등이 이 범주에 들어가는 작품들이나 지면 관계상 장을 달리 하여 논의하려 한다.

34) 탁용달, 『3대혁명소조운동에 관한 연구-사회, 경제적 변화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 학위논문, 2004, 44쪽.

성공적으로 끝이 나서 석훈은 석 달 후 학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퇴원 후 석훈은 수술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외과과장을 초대하고자 의사를 찾아가나 의사는 한사코 거절하면서 뉘두리를 늘어놓는다. 그 뉘두리는 아들이 대학입학기준에 2점이 모자라 석훈의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 소리를 들은 리석훈은 순간적으로 갈등을 한다.

심중은 자못 복잡하고 무거워졌다. 가슴속깊이에서는 이 성실한 복부외과과장에 대한 동정심과 의리가 불길처럼 타오르는가 하면 어느결에 량심과 원칙의 물줄기가 그 불길을 솟덩이로 식어버리게 한다.³⁵⁾

‘동정심·의리’와 ‘양심’이라는 상반되는 가치가 석훈의 내적 갈등의 원인이다. 이 내적 갈등은 자신이 입은 은혜에 대한 보답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석훈은 ‘냉철한 공정성과 원칙’으로 ‘저울추’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입학생 모집이나 여타 학사 업무에서 한 치의 실수도 없이 규정대로 일 처리를 해왔다. 그런데 ‘외과 과장’의 일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당신을 소생시킨 의사를 도와주어야 한다”거나 “사람이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부추기는 아내의 말은 그런 석훈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고 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공교롭게도 그가 떨어뜨리기로 작정한 학생이 바로 ‘강안유보도관리원’, 즉 공원관리원의 아들로 밝혀진다. 갈등이 시작된다. 그는 곧 관리원에게로 생각이 이어졌다.

관리원은 지금 이 비바람속에서 강안유보도나 큰길 아니면 소공원을 돌보고 있을 것이다. 수년간을 하루같이 도시사람들이 잠에서 깨나지 않은 이른새

35) 백남룡, 『생명』, 137쪽.

벽에 거리와 소공원과 유보도의 먼지와 쓰레기를 쓸어내고 담배꽂초와 과일 껍질, 종이조각이 들어찬 휴지통을 털어내던 오십대의 사람, 밀짚모자를 쓴 영예군인, 폭우가 내릴 때도, 눈보라가 아우성칠 때도 그곳에는 초소를 지켜 선 보초병마냥 그가 서있다. 밤새 눈이 내린 새벽이면 도시의 어느 혁신자도 습눈에 발목을 문으며 공장으로 간적은 없다. 아침 산그림자가 도시의 머리위에 명암의 음영을 던지며 서서히 퍼질 때 반반하고 깨끗한 출근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즐거운 기분의 한부분이 어데서 마련된것인지 생각지 않는 것이다.³⁶⁾

석훈은 관리원의 아들을 다시 면접한 다음 날 일부러 관리원을 만나러 간다.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그의 꾸밈없는 소박한 얼굴을 보자 석훈의 갈등은 서서히 잦아든다. 석훈의 갈등 해소는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이면서 숨은 영웅에 대한 한 모형 제시와 관련이 있다. 북한문예에 등장하는 숨은 영웅의 모습은 여러 가지이다. 이 소설에서 소개하는 숨은 영웅(공원관리인)은 “청춘시절에 조국을 지켜 피를 흘렸고, 오늘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기분, 정서생활의 만족을 주기 위해 비자루와 쓰레기통을 들고 길가에서 일하는 사람, 그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여기고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그리고 법관처럼 엄격히 수행하는 사람, 양심에 티 한점없이 깨끗한”³⁷⁾ 사람으로 규정된다. 이런 사람에 비해 석훈 자신은 ‘직권과 그 어떤 인간적 의리에서 출발한 타협과 융화’의 인물이며, 평범한 사람들의 ‘성실성과 희망을 농간’하려 한 사람에 불과했다. 공원관리원을 매개로 하여 석훈은 ‘비자루 권 사람의 성실성을 배신하고 모욕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양심의 울림이 그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 친다. 관료주의는 이렇게 검열되고 준엄한 심판의 자리로 내몰리게 된다. 석훈이 관료주의를

36) 위의 소설, 143쪽.

37) 위의 소설, 145쪽.

조장하는 지도원에게 하는 다음의 말은 바로 북한 사회를 향해 던지는 체제의 목소리일 것이다.

《동무나 나나 수험생의 성적을 부모의 직업과 연관시켜보는 관점은 버리
기요. 자본주의적사고방식이요, 부위원장직위와 유능한 외과의술이 학생자녀
의 지식을 대변할 수는 없잖소? 부위원장과 의사는 그들대로, 학생은 학생대
로 자기 힘과 재능으로 나라에 복무하는게 아니겠소. 입학성적은 나라의 장래
와 관련되는 일이요》

《!...》

《수재를, 탐구심있고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학에 받아 키워야 진실로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킬수 있지 않겠소. 그러나 개인적이익과 권력에 끌려
건전한 사회적윤리를 파괴하는 일은 하지맙시다. 우린 대학의 학장이나 교무지
도원이기전에 보통 공민이요 조국이 평등하게 준 다른 공민들의 이익을 침해하
고 신성한 권리를 조금이라도 묵살할 때는 범죄를 짓는것과 같소》³⁸⁾

이 소설에서는 타파해야 할 관료주의를 숨은 영웅의 성실함과 우직함에 대비하여 그 폐단을 고발하고 있다. 관료주의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며, 그것은 곧 국가의 장래를 쪼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규정된다. 그리고 그런 관료주의에 대한 형상화는 북한 사회 내부에 대한 문제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폭우가 내릴 때도, 눈보라가 아우성칠 때도’ ‘초소를 지켜선 보초병’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이 소설의 창작 동기일 터이고, 그것은 그만큼 북한사회 내부에 관료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숨은 영웅’의 창조에 의한 고상한 풍모와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형상화는 관료주의에 대한 우려가 깊어가던 80년대 북한 소설이 수행해야 할 과제였던 것이다. 비록 숨은 영웅의 형상화나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이 북한문단의 교시적 분위기에 줄을 잇고 있다 할지라도

38) 위의 소설, 149쪽.

이 소설은 이전의 지나친 도식주의나 무갈등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80년대 북한문예가 거둔 성과임에 틀림없다.

김영길의 『하늘과 땅』은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이 더 직설적으로 묘사된 소설이다. 이 소설은 타인의 눈에는 하찮은 직장에서 자신의 할 일을 능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근로대중의 귀감이 되는 ‘숨은’ 영웅을 통해 북한사회에 만연한 관료주의에 대해 비판한다. ‘군기상대’에 근무하는 관측대 소장 ‘문순보’와 새로 부임한 ‘강정구’ 사이의 갈등이 서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하늘과 땅』은 두 사람의 업무 처리 방식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모범적인 근로자상을 제시하려고 한다. 문순보 소장은 ‘3시간에 한 번씩 관측 자료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도 기상대에 보고하는 일 외에는 일거리를 만들지 않’으며 ‘어디 가서 무엇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질색’인데, 스스로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다. 그에 비해 강정구는 ‘중앙과 도 기상대를 쭈셔서’ ‘일판을 벌려놓기’ 일쑤인 사람이다. 이런 극단적인 업무 방식의 차이는 자동온도측정기와 풍속기를 새로 설치하려는 강정구와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귀찮아하는 소장의 대립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 생활의 율타리, 아늑한 목책 안으로’ 강정구를 끌어들이려던 소장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자신이 강정구가 일으키는 바람에 말려들고 만다. 문순보는 강정구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늘 불만을 품고 있지만, 강정구 역시 문순보의 안일한 현실 대처에 질타를 한다. 강정구의 질타가 문순보에게는 뼈아픈 지적이었지만 동시에 ‘자기 생활에서의 전전기-군 위원회 상업담당 부위원장 시절-’을 회상케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문순보 또한 강정구의 호기가 조만간 부딪히게 될 난관을 예측한다.

그(문순보: 인용자)는 자그마한 기관을 본때있게 꾸려보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설계해보았다. 점차 <문부위원장>이라는 타력이 쇠진해지면서 어느 하

나도 수나롭게 풀려나가는 것이 없었다. 처음엔 그래도 생각은 부글부글 끓어 올라 좀 시도도 해보다가 세월이 감에 따라 이 호젓한 곳의 호젓한 주인으로 돼버리었다. 순보는 이 모든 것을 기상대라는 기관에는 힘이 없어 안된다는 자작구실로 정당화하며 마음편히 살아왔던 것이다. 순보는 자기가 터득한 <생활철학>을 이 청년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다.³⁹⁾

위의 인용은 힘없는 기관에서는 어떤 일도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일종의 타성이 빚어낸 무기력을 꼬집음으로써 문순보의 행태를 문제 삼고 있다. 이는 ‘<문부위원장>이라는 타력이 쇠진해지면서 어느 하나도 수나롭게 풀려나가는 것이 없었다’라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료주의에 대한 폐단의 지적이다. 힘 있는 관료가 추진하는 일은 사안의 적절성 여부에 상관없이 순조롭게 진척되지만 ‘타력이 쇠진해지면’ ‘어느 하나 수나롭게 풀려나가는 것이 없었다’라는 비판은 북한 사회가 안고 있는 관료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지적인 것이다. ‘셋이 힘을 합치면 한 사람의 힘보다 크다는 건 산수적 계산’일 뿐 ‘사회생활을 산수로 할 수’ 없다는 문순보의 주장은 북한의 관료가 체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일 터이고, 그것을 문순보는 ‘생활철학’으로 터득한 것이다. 따라서 ‘생활철학’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강정구의 행태는 문순보의 눈에 치기로 보일 뿐이다. 이런 문순보의 시선을 통해 ‘권한’이 없으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관료주의의 폐단에 대한 지적은 북한 사회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돋보인다.

이 소설이 지향하는 바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권한이나 물건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강정구의 무모한 도전은 이 소설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빛나는 주제의식이다. 그런 강정구의 도전 정신은 숨은 영웅 찾기가 수행해야 할 전형적인 인물 형상이 어떻게

39) 위의 소설, 211쪽.

완성될 수 있는가를 예시하는 좋은 사례이다. 도로에 시멘트 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도한 강정구는 도 기상관측소에 문의하여 곧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 소나기가 오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공사 중단을 요청하려 하지만 소장은 그건 ‘남의 일’이니까 간섭할 필요가 없다며 월권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이에 불응한 강정구는 기상관측소가 힘이 없는 것은 ‘생활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관측소로 거듭 나야 함을 강조한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기상관측)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도로포장)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북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꼬집는 것이다. 이 소설의 제목이 ‘하늘과 땅’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하늘과 땅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근로대중은 노력해야 한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이 작품은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과 땅』에서 알 수 있듯이 숨은 영웅을 형상화해야 한다고 했을 때 북한문학이 전형으로 삼아야 할 숨은 영웅은 바로 실생활 속에 녹아드는 인물이었다.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는 노동자가 80년대 북한문학이 내세운 숨은 영웅의 전형이었고, 『하늘과 땅』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전범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복보다는 ‘사회와 집단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⁴⁰⁾를 강조하고 있는 점은 이 소설이 교조적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이기도 하다. 이런 한계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력사의 창조자,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옹계 수행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는 ‘로동계급에 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결정적 요인’⁴¹⁾이라고 ‘교시’하는 한,

40) 위의 소설, 226쪽.

41) 사회과학원 문학예술연구소편,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7쪽.

극복될 수 없는 한계이다.

한편 『하늘과 땅』은 빼어난 묘사로 미학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기발게 양대마냥 하늘높이 솟은 장대끝에서 꼬마비행기의 바람개비가 사르륵-사르륵 돌아가고 있었다.’⁴²⁾라든지 “잔디밭 속에서 수정알같은 이슬방울들이 해빛에 반짝거리고 있었다”⁴³⁾ 등이 그 예이다. 이런 미학적 성취 또한 80년대 북한소설이 보여준 또 다른 특징이다. 주체문학시대의 문학예술은 인민을 교양해야 하며,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거나 작품의 미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에게 교시해야 할 당의 정책이나 강령의 전달자여야 했지만 8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기능적, 문학 외적 역할의 순화가 빼어난 묘사를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특징은 80년대 북한문에 정책의 변화가 추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안홍윤의 『칼도마소리』는 교시적 특성이 잘 드러난,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의 소설이다. 이 소설은 크게 세 갈래의 모티프가 서로 얹혀 서사 단위를 구성하고 있다. 즉 도마 만들기, 기중기 설계, 관료주의가 그것이다. 각각의 서사가 구성하는 긴장관계는 그 서사에 합당한 이야기와 인물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우선 도마 만들기는 양식사업소 지배인이며 주인공인 ‘나’와 아내, 기중기 설계는 ‘나’와 ‘황봉기’라는 부하 직원, 관료주의와 관련해서는 ‘나’와 나의 오랜 친구이며 도수산관리국장인 ‘고봉수’와의 갈등과 긴장이 주제를 구축하고 있다.

세 가지 서사는 하나의 꼭지점으로 수렴된다. 그것은 육체의 늙음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늙음이 문제라는 것이다. 황봉기가 설계랄 것도 없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기중기 해결 방안을 ‘나’가 생각하지 못한 이유는 외부의 도움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한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42) 김영기, 앞의 소설, 207쪽.

43) 위의 소설, 213쪽.

다. ‘나’도 젊었을 때에는 ‘기계에 들어서는 통 무식쟁이였’지만 자동차엔진으로 배를 동력화할 방법을 고안하여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경향이 있었다. 그런 ‘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타성에 젖어 안일하고 나태한 생활에 빠져들었으며, 급기야 건설적인 사고는 정지되고 모든 일을 관료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다. 고봉수는 ‘나’의 그런 결함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나’와 매우 절친한 사이였지만 안일해진 ‘나’의 업무 처리방식이 혁명사업의 실패 요인이라 판단한 고봉수는 일부러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칼도마를 둘러싼 아내와의 언쟁이나 기중기와 관련한 황봉기의 사건, 그리고 관료주의적 사고에 젖어 사업을 인맥으로만 해결하려다 무안만 당한 ‘고봉수’와의 일의 발단은 모두 ‘안일’로 귀착된다.

혁명은 곧 투쟁이며 투쟁은 곧 생활이다. 그 생활은 아침에 마당을 쓸고 세수를 하는 등 작고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된다.

작고 사소한 것, 바로 그속에 그 사람의 정신상태와 투쟁의욕과 기백이 반영되는 것이어늘, 아침에 마당쓸기가 싫어지면 낮에 일에서도 몸을 아끼게 되며 나중에는 간고한 혁명의 행군길을 걸어가기 싫어지는 것이다.⁴⁴⁾

혁명=투쟁=생활이 일치한다는 화자의 나레이션은 숨은 영웅 찾기의 미학적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드러내기의 방식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인민에게 제시된 다양한 양상의 숨은 영웅에 대한 형상화는 결국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의 터전에 혁명을 불러내고 있다. 문학의 이름으로 호명된 혁명은 일상의 내면화를 거쳐, 어느 순간 인민들의 삶을 규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80년대 북한문학에서 일상 속에서의 혁명은 가장 고상한 리얼리즘이었던 것이다. 정치는 한 순간도 문학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적이 없으며, 당의 지침이 미학적 가치에 앞서 문학

44) 안홍윤, 『칼도마소리』, 251쪽.

의 내용을 규제하고 있음은 질량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80년대의 북한문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주인공 찾기라는 방식으로 변주되긴 했지만 80년대 북한문학에서 여전히 혁명은 강조되었고 생활의 장에서 치러지고 있던 투쟁은 ‘칼도마소리’가 주는 일상의 정겨움으로 변주되고 있었으니, 이를 일러 ‘정치적 심미화’⁴⁵⁾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3) 당원으로 거듭나기

설진기의 『입당』은 제목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이미 정치적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 소설은 당원이 되고자 하는 주민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숨은 영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 소설은 ‘입당’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당과 수령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주체형 인간의 전형을 계몽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여타의 작품과 다르게 이 작품은 수령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교조적이다. 아울러 당과 수령을 향한 충성심을 강조하여 모든 북한 인민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려는 일종의 동원의 정치학이 작동하고 있다.

『입당』에서 눈여겨 볼 것은 평범한 인물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서사전략이다. 입당 심의를 받기로 한 주인공 ‘최순심’은 예정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의아한 심사자들은 자초지종을 알아보려 한다. 그러면서 ‘최순심’의 정체성을 심사자 파일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씩 추적해 간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특출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 결론에도 불구하고 책임비서 ‘오제환’은 “문건이 사람들의 심장까지 보여주시는 매우 힘든 일”이라면서 “심장을 보고 싶다”⁴⁶⁾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심장은 글로는 기록

45) 신형기는 정치의 심미화란 발터 벤야민이 제시한 단어로써 “파시즘의 경우와 같이 심미화를 통해 정치적 소통의 공간을 없애는 억압의 기획”이며 “단순히 순수한 심미적 자질로의 환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신형기, 『남북한 문학과 정치의 심미화』, 김철·신형기,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323쪽.)

되지 못한, 어쩌면 기록할 수도 없는 맨얼굴을 의미한다. 최순심의 맨얼굴은 오제환에 의해 환기되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확인된다. 하나는 과거 봄 가뭄을 대비해 독에 쌓인 눈을 몰주머니에 열심히 채우고 있던 모습이며, 다른 하나는 입당심기도 미뤄둔 채 무너질 위기에 처한 제방 독의 보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런 최순심의 외양 묘사이다.

비에 젖고 구겨지고 뒹어진⁴⁷⁾ 고급양복, 흙탕물에 <목욕>을 하고난 의혁구두는 처녀의 영웅적인 업적을 (제환에게는 꼭 그렇게 믿어졌다.) 웅변으로 보증하고 있었다.

책임비서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래서 이 처녀가 제시간에 오지 못했었구나. 제방이 구원된 다음에야 입당심의회의생각이 나서 그렇듯 기를 쓰고 달리었구나! 오제환은 가슴이 달아올랐다. 그에게는 처녀의 옷자락에 발린 흙탕물 자리마저 금빛훈장마냥 빛나보이는 것이였다.⁴⁸⁾

‘고급양복’이나 ‘의혁구두’가 입당심의를 위해 갖춰야할 외양 혹은 문서로 기록된 ‘특출한 것’을 상징한다면 ‘비에 젖고 구겨지고 뒹어진’이라는 표현이나 ‘흙탕물’은 특출한 것의 대척점에 있으면서도 ‘영웅적인 업적’이나 ‘금빛훈장’ 혹은 ‘심장’의 상징어로 자리한다. 그리고 ‘금빛훈장’이나 ‘영웅적인 업적’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보편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것은 이전의 문학이 김일성과 같은 혁명적 영웅을 묘사하는데 주력했던 것에 비해 ‘인민적 영웅’의 시대가 80년대의 화두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숨은 영웅은 생활 속의 영웅이며, 보통인민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곧 혁명이고, 그 사람이 곧 영웅이라

46) 설진기, 『입당』, 229쪽.

47) 기본형은 ‘뒹다’로 ‘어지럽혀지거나 때가 끼어 더러워지다’라는 북한말.

48) 위의 소설, 235쪽.

는 의미 부여는 일상의 삶 속에 영웅을 내면화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고안 해낸 80년대의 창작 방식이다. 숨은 영웅 찾기는 교묘하게 공적 윤리를 일상의 개인에게 내면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는 것이다.

맨얼굴의 또 다른 형태는 다음의 인용에서 드러난다. 책임비서인 오제환은 입당심의를 늦은 최순영을 일부러 다그친다. 그에 대한 순영의 답변은 숨은 영웅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이미지화하고 있다.

책임비서의 <추상같은 질책>이 그의 머리우에서 계속되었다.

《동무야 백사불구하고 비서처회의부터 참가해야지 않겠는가. 지각할데가 따로 있지! (중략)》

순심은 몸을 꿈틀했다.

《그렇지만 저는...차마...그냥 지나갈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이...》⁴⁹⁾

북한의 숨은 영웅은 겉치레의 화려함이나 논리적 사고의 뛰어난보다는 오히려 ‘양심’이라는 내면의 순수가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된다. 외부의 강제적인 명령에 앞서 양심에 따른 자발적인 능동성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임을 위의 인용은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양심은 입당의 목적이 “당과 수령님께 충성을 다 하하는데 있다”⁵⁰⁾라는 대목에서 그 실체가 분명해진다. 이런 삶의 태도는 보다 강도 높은 희생이나 헌신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며, 영웅으로 거듭나기 위해 치러야할 통과제의 같은 것이다. 사실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이러한 서사는 모범적인 인간의 모형을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모든 인민을 짜맞추려는 의도된 기획이다. 당과 수령의 은택에 무한대의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숨은 영웅의 무비판적인 행동들은 북한의 인민들을 단일한 전

49) 위의 소설, 236쪽.

50) 위의 소설, 238쪽.

형으로 양산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누구라도 숨은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선전은 역설적이게도 모든 인민은 예외 없이 숨은 영웅처럼 자발적으로 당이나 국가의 사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묵시적 강요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런 삶의 방식이 내면화되고 일상화될수록 북한 주민은 기계적인 삶에 포섭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수록 개성이나 자아의 정체성 또한 희박해질 것이 자명하다. 숨은 영웅이 '북한문학의 관심과 시각을 현실화하는 형상'⁵¹⁾인 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

4) 사랑과 혁명의 어우러짐

로정법의 「내 고향의 작은 다리」는 사랑의 서사와 혁명적 투쟁의 서사가 잘 어우러져 여타 작품과는 다른 미적 성취를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 둘다 리를 매개로 하여 내면에 싹트던 남녀 주인공의 사랑은 혁명적 과업이라는 이름 아래 제대로 확인도 되지 못한 채 이별로 귀결되고 말지만, 소설 전체에 흐르는 감미로운 사랑의 감정은 잠깐이지만 정치적 구호를 잊게 만든다. 이 소설은 생활을 서사적이나 극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서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북한문학에서는 이채롭다.

그렇다고 해서 당이나 김일성의 언술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때는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받아안고 온 나라가 새 조국 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기 시작하던 1945년 11월경”⁵²⁾이라는 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개선연설’, 즉 정치적 언술이 ‘1945년 11월’이 구획하고 있는 시공간을 넘어 소설 마지막까지 주인공들의 삶을 주박(呪縛)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생활의 문학적 의미화라는 과정을 통해 모든 인민을 일반화하고 통합하고자 했던

51)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320쪽.

52) 로정법, 「내 고향의 작은 다리」, 252쪽.

‘당(주석)의 목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울림으로 작동하던 북한문학에서 <사랑의 서사>라는 이질적인 목소리가 뼈죽 고개를 내민 이 작품은 80년대 북한문학이 건져 올린 성과이며 동시에 북한문학의 <열릴> 가능성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 특히 “북한문학의 역사는 하나의 이야기를 고정된 형식화의 역사였다”⁵³⁾라고는 하지만 사랑이 이야기가 문학의 변치 않는 소재라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눈여겨 볼 것은 공간이 갖는 의미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 고향의 작은 다리’는 단 하나의 이야기-새 조국 건설이라는 장군님의 력사적인 개선연설-가 시공간을 장악할 수 없게 만드는 매력의 장소이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성호네 집에서 얼마쯤 나가면 맑은 시내가 흘렀다. 언제나 노래하며 흘러가는 그 시내가에는 한사람씩 건느기 좋게 놓여진 돌다리가 있었다.
그 다리목에서 성호는 아침이면 늘 한 처녀와 어꼈다.⁵⁴⁾

주인공 ‘성호’와 ‘처녀’의 우연한 만남은 돌다리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돌다리는 만남의 장소로만 설정된 것은 아니다.

농촌에서는 살찐 지주들이 여전히 긴 대통을 내흔들며 농민들을 못살게 굴고 있었으나 여기 맑은 시내가의 작은 돌다리로는 벌써 새 생활에 나선 사람들의 활기있는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으니 처녀도 그 가운데 한사람으로 짐작되었다.⁵⁵⁾

‘살찐 지주들’의 횡포가 ‘새 생활에 나선 사람들의 활기 있는 발걸음’과

53) 신형기, 앞의 글, 321쪽.

54) 로정법, 앞의 소설, 252쪽.

55) 위의 소설, 252쪽.

교차되는 곳이 둘다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둘다리는 악과 선이 교차하는 꼭지점이다. ‘세루조끼에 금시계줄을 늘인 유지풍의 사나이’와 ‘모시 두루마기를 입고 팔자걸음을 하는 <시골랑반>’, 12대의 자동차를 도망가며 ‘마사버린’ ‘오노라는 회사 주인놈’, 제사공장처녀들을 못살게 구는 ‘상판대기부터가 징글스럽기 짝이 없는 오십줄의 왜놈수위’, 해방 전 성호가 조수였을 때 자신을 못살게 굴던 ‘란폭한 운전사’는 물론이고 ‘킴킴한 색깔의 수수한 작업복에다 신문지에 뭉그린 점심밥곽을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 노동자나 ‘아직 짙신발’로 촌에서 나무 팔러 들어오는 ‘지계군들’이 나란히 선과 악을 실루엣처럼 비쳐주는 것도 둘다리가 있어서 가능하다. 그래서 둘다리에는 ‘활기 있는 발걸음’과 뒷걸음질 치는 발걸음이 선과 악의 상징으로 홀로그램처럼 비쳐진다.

이 소설에서 남녀 주인공은 이렇게 묘사된다. ‘군데군데 덧천을 대고 기운 물바랜 감장치마에다 품이 좁아보이는 흰저고리를 입고 땀질자리를 감추지 못한 고무신’으로 무장하고 있는 처녀는 ‘언제나 뛰는 처녀’⁵⁶⁾로 활기 넘친다. 그에 못지않게 ‘운전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결눈을 팔지 않고 앞만 보는 버릇을 키워왔고 어느덧 그에 습관되어’ 있는 성호의 발걸음도 활기차기는 마찬가지다. 처녀처럼 늘 뛰어다녀서가 아니라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결눈을 팔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내면은 늘 활기로 차 있는 것이다. ‘다섯시반이면 시계처럼 다리 양쪽에 나타나군’ 하는 이 둘에게 있어 사랑과 결혼 그리고 행복의 가능성은, 얻을 수만 있다면 최고의 선물이다. 둘다리에서 제 시간에 만나기도 하고 때론 어긋나기도 하듯 이들의 사랑은 구체적인 것 같으면서도 잡힐 듯 잡힐 듯 손길 저 쪽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가능성의 것이다.

결국 이 가능성은 가능성으로 끝날 뿐, 이 둘의 사랑은 손아귀에 확실히

56) 위의 소설, 253쪽.

포획되지 않고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만다. 그 책임은 두 주인공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장군님의 부르심따라 모두다 민주주의 새 조선 건설’⁵⁷⁾이라는 구호가 책임질 일이다. ‘민주주의 새 조선 건설’이라는 구호는 어떤 쫓겨나도 녹이고 마는 용광로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녹이고 말았다. 사랑은, 가슴 속에 진한 화인을 남긴 그 알싸한 연애는 ‘돌다리’를 건너 사라졌다. ‘어떤 날은 동무들과 깔깔 웃으며 걸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민주청년행진곡>을 신나게 부르며 걸어오다가’ ‘나’를 보고 등 뒤로 살짝 숨어버리던 그 ‘처녀’는 신기루였다. 구호 속으로 사라질 신기루. 전쟁 때문에 ‘미국놈들’과 싸우기 위해 전선으로 나가야했고 그것이 기약할 수 없는 이별의 직접적 원인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어차피 성호는 처녀의 이름과 집주소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별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그 예정된 이별을 위해 전쟁은 소설적 장치로 마련되지만, 그 애뜻한 연애는 한 순간도 ‘조국’을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숨은 영웅을 위한 희생제물이었다. 그래서 이 연애는, 그리고 이별은 더 가슴이 아프다.

로정법의 또 다른 소설 『고향의 모습』은 ‘시대와 사랑에 대한 노래’라는 수기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서사이다. 즉, 화자인 ‘나’의 눈에 비친 교통안전원 ‘조선희’에 관한 사랑의 수기인데, ‘시대’와 ‘사랑’이라는 언어가 갖는 이중적 가치가 어떻게 소환되고 유예되는지를 살피는 것은 80년대 북한문학이 내밀고 있는 하나의 글쓰기 방식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하다.

‘선희’는 교통안전원 임무의 중요성을 깨닫고 무용가가 되려던 꿈마저 버린 여성이다. 그런 선희의 직업적 사명감은 현장에서 부딪히는 운전사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점점 악화된다. 그 이유는 ‘이름 대신 호각을 불어야 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반갑다는 인사가 아니라 증명서부터 요구해야 하는 생활’에서 오는 불편함 때문이다. 그 불편함은 단속자와 위반자

57) 위의 소설, 257쪽.

사이에서 어쩔 수없이 생기는 위계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하다. 말은 바 직 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선희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괴리는 ‘추궁하는 편이 아니라 추궁 받는 편을 택하기에 알맞춤한’ 선희를 곤혹스럽게 만든다. 선희의 우유부단한 성격은 곤혹스러움을 더한다. “단속된 사람들이 나를 정복 입은 안전원으로서가 아니라 예쁘게 생긴 일개 처녀로 대하면서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슬슬 웃으면서 반죽 좋게 매여달릴 것만 같아 겁이 났다”라는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 없는 태도는 교통안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최대 걸림돌이다. 이 소설은 바로 이런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선희는 혁신자 칭호를 받는 ‘야간지원중대 수송중대장’ 박두남을 사랑한다. 이들의 사랑은 우연한 두 번의 만남이 계기가 된다. 막 제대하고 나온 운전수가 교통질서를 위반하자 그를 단속하였는데 그가 바로 박두남이었고, 선희는 그에게 ‘평양시안에서의 자동차운행질서’에 대해 교육한 적이 있었다. 다른 한 번은 교통질서를 위반하고 뺑소니치는 차를 추격하기 위해 우연히 마주오는 차를 잡아땄는데 그 운전수가 바로 박두남이었다. 이들의 만남을 가능케 한 원동력은 평양거리에서 펼쳐지고 있던 수많은 ‘대기념비적 건축물’들이었다. 건축자재를 실어나르는 박두남과 원활한 교통질서를 유지하여 그 건설을 예정대로 진행하게 하는 교통 안전원의 만남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들의 사랑은 건설현장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벗어나면 이상한 대상으로 변질된다. 수도 한복판을 장식하는 대기념비적인 건축물을 통해서만 이들의 사랑은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수많은 건축물이 하루가 멀다 하고 하늘을 향해 쪽쪽 뻗어가는 수도 평양의 시민이라는 우월감과 시민으로서의 건전한 생활 방식이 공유될 때 이들의 사랑은 인정된다.⁵⁸⁾ 선

58) 박두남과 조선희가 구체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는 계기는 풍초를 버리고 도망가는

회는 “평양은 우리가 나서 자란 고향이었으니 고향에 대한 이 공통된 마음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이를 더욱 접근시키고 있었다”⁵⁹⁾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의 내면에는 고도의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대기념비적 건축물’에 흘린 땀방울과 똥초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질서의식이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이들의 사랑은 ‘서로의 지향과 감정, 속마음까지도 하나의 피줄처럼 이어지는 그런 격정을 체험’할 때만 성립되는 것인데, 그 체험은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구호 아래서만 가능했다. 따라서 선회의 사랑은 이미 기능적 수단에 의해 규정된 제한적 사랑이다. 평양이라는 공간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지배하려 한다. 그 지배는 의도된 것이지만 이 소설의 가치는 그것을 청춘들의 사랑이라는 소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소설적 장치에 있다. 사랑이 기능을 위해 복속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랑의 감정을 이처럼 진솔하게 표현한 소설을 북한문학에서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평양에서의 사랑은 박두남이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장’으로 자진하여 떠남으로서 아쉬운 마침표를 찍는다. 하지만 평양거리에서 호명된 소명의식은 비단 평양에서만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닐 터, 순천으로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이 소설은 소명을 다한다.

그런데 여기서 순천으로 간 두남에게서 온 편지 한 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별편지에는 네 거리 교통안전원의 신호봉은 ‘행복한 곳으로 안내하는 길잡이’이며 네 거리의 선회는 수도가 사랑하는 ‘꽃’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편지는 조국의 호명에 부응하는 두남의 고귀한 소명의식

한 운전사를 함께 추격하면서이다. 그리고 박두남의 특별한 감정이 부담스럽던 조선회가 박두남을 멀리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가까워지는 계기도 타인이 버린 똥초를 박두남이 줌을 보았기 때문이다. 평양시민의 생활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똥초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고도의 시민의식이 몸에 배어있지 않은 사람과의 사랑을 평양거리에서는 꿈꿀 수 없다.

59) 로정법, 『고향의 모습』, 297-298쪽.

이 낳은 부적같은 것이다. ‘한 시를 떠나서도 살지 못할 것만 같던 평양’을 떠나 순천의 대조국 건설장으로 간 두남의 순결한 결정은 선회를 ‘네 거리의 꽃’으로 규정함으로써 빛을 더한다. 평양시내의 네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길잡이’이며 ‘꽃’이라고 선회가 명명되는 순간 선회는 사유물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내려지는 순간 그녀는 오롯이 국가를 위한 공공재로 환원된다. 네 거리의 ‘꽃’ 선회는 어쩌면 처음부터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인물이었는지도 모른다. 선회가 ‘꽃’으로 호명될 때 선회는 이미 규정화 된 틀에 갇힌 앵무새같은 존재로 전락하며, 그것이 그녀가 수행해야 할 등장인물로서의 역할이었다. 국가는 필요에 의해 여성을 얼마든지 꽃으로 호명할 수 있는 곳이 북한이었던 것이다.

이 소설에서 소명을 위해 박두남과 조선회가 그들의 사랑을 이별이라는 희생제물로 영광스럽게 바쳐야 하는, 즉 국가의 부름은 개인의 사랑을 얼마든지 희생제물로 삼을 수 있는 북한의 현실을 목도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개인을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 소설을 지배하고 있다하더라도 사랑의 감정을 완전히 무화시킬 수 없다는 일말의 희망을 이 소설에서 엿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이 틈새의 발견은 이 소설이 주는 큰 수확이다. 대조국 건설이라는 ‘시대’의 소명 앞에 ‘사랑’은 허무하게 굴복하고 말지만 국가의 소명에 부응하기 위한 집단적 최면현상에도 불구하고 『고향의 모습』에서 보여준 사랑서사는 북한문학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5) 도덕으로 무장되는 당의 ‘명령’-『명령』

한웅빈의 『명령』은 ‘광복거리 건설장’에서 일하고 있는 세 인물을 통해 광복거리 건설은 ‘명령’이지 선택이 아님을 강조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명령을 앞세워 시공간은 물론 등장인물들의 사고와 행동도 결국에는 광복거

리 ‘건설’로 수렴되도록 짜여있다. ‘명령은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⁶⁰⁾는 ‘전사’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명령은 힘이 있으며 동시에 도덕적이다. 그 도덕은 사적 가치를 모두 무화시키는 공적 가치에 의해 조성된다.

어느 날 주인공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전사 강철용’이 찾아온다. 광복거리 ‘가열장설계도면’을 받으러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약속한 시간에 건네줄 수 없게 되었으니 ‘래일’ 가지러 오라고 한다. 그러나 전사는 막무가내다. 설계도면을 ‘오늘’ 받기로 했으니 ‘중대장 동지’가 가서 받아오라는 명령을 ‘전사’에게 했고, 그래서 ‘전사’는 ‘반드시’ 그 도면을 받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끝내지 못했으니’ 줄 수 없다는 ‘나’와, ‘끝낸다고 했’으니 달라는 ‘전사’의 언쟁은 감정싸움으로 격화된다. 그들 사이에는 도무지 공통된 언어가 없는 듯 했다. 사실 정해진 날에 도면을 끝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나’는 당당하다. 왜냐하면 늘 그런 방식으로 일해왔기 때문이다. 그 방식의 이면에는 사심의 감움으로 무장한 ‘나’의 논리가 도도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름 하여 사적 가치이다.

이미 그런 ‘나’의 일 처리 방식은 여러 차례 실장에게 지적받은 바다. 그러나 실장은 ‘무척 소심하고 어리무던한 사람’이라 그의 명령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권고에 가까웠기 때문에 ‘나’의 일처리 방식은 방종된다. 그는 “사업을 포치할 때도, 지시를 줄 때도 <해야겠소!> 하거나 <하시오!> 하는 적이 결코 없”으며, “언제나 미안한 부탁이라도 하듯이 <해보지 않겠소?> <할 수 없겠소?> 하고 말하곤 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식의 명령은 도무지 수용되지 않는다. 그런 투의 말에 ‘나’는 오히려 역증이다.

설계도면을 제작하는 일도 약속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지만 그 약속은 ‘나’가 생각하는 형태의 약속보다는 후순위이다. ‘나’에게 있어 약속은 양가적 가치의 것이며 우선 순위는 ‘나’의 기준에 의해 정해져야

60) 한웅빈, 『명령』, 284쪽.

한다.

저녁총화가 또 한량없이 길어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늦게까지 일할 수는 없었다. 일곱시까지 집에 돌아가야 한다. **친구들이 기다릴 것이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했다. 생활은 나에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약속을 어긴 경우 가까운 친구일수록 이해 시키기 어려웠다. 그것은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기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날 저녁의 약속이 바로 그런 약속이었다.⁶¹⁾ (강조 : 인용자)

친구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념은 ‘광복동거리’의 설계도면보다 가치우위이다. 그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제 시간에 작성하지 못한 ‘나’의 행위는 친구와의 약속과 대립하지 않는다. 이미 ‘나’에게 있어 친구와의 약속은 모든 것의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고방식의 소유자인 ‘나’에게 전사의 등장은 충격이다. 그의 말은 휘어지지 않을 강철이었다. 전사의 등장으로 비로소 나의 신념에 균열이 생기며 급기야 내 기준의 약속과 전사 기준의 약속이 대립하게 된다.

<안됩니다.>

<?!>

나는 어리둥절했다.

<뭐가 안된다는거요?>

<전 도면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냥은 돌아갈수 없습니다!>

나는 성을 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수 없었다.

<글쎄 도면이 채 안됐다질 않소? 그리고 동무넌 기초를 래일까지 해야 끝

61) 위의 소설, 276쪽.

넬텐데 뭘 그러오?>

<아닙니다! 우린 오늘까지 끝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고집불통이었다. 두손을 바지훈술에 딱 붙이고 차렷자세로 서있는 것이 어떤 힘으로도 움직이게 할수 없을 것 같았다.⁶²⁾

전사의 버팀은 명령을 수행코자 하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 전사의 태도가 나에게서는 ‘고집불통’으로 비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의 버팀은 소설의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절대적 의미이다. 전사에게 명령(약속)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릴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 아니었다. 명령은 어떤 번민이나 갈등, 편의적 사고나 생활의 느슨함은 물론 개인의 감정까지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 힘은 ‘광복거리’ 전체를 보호막처럼 감싸고 있는 일종의 공포이기도 하다. 그 공포는 건설이 전투로 인지되는 순간 작동하는 일종의 선언적 코드다. 말(명령=약속)의 힘은 광복거리에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성을 가졌다. 신적 권위인 셈이다.

우리는 지금 광복거리 건설을 하루라도 더 빨리 끝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쳐 싸우고있습니다. 우리 중대장동지는 우리가 지금 전투임무를 수행하고있다고 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업조직은 전투조직이라고 하고 작업지시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겨주는 무조건...⁶³⁾

건설=전투라는 전제가 이미 설정된 마당에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할 의무이지 거기에 어떤 반론이나 이의도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 받은 명령은 목숨 바쳐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 없는 <전투>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62) 위의 소설, 279쪽.

63) 위의 소설, 281쪽.

만약 80년대 북한소설에서 건설이 전투로, 건설현장이 전장으로 치환되고 있었다면, 약속에 대한 도덕성은 하나로만 귀속된다.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공적 가치로서의 명령이 절대적 의미로 자리하는 한 친구와의 약속은 무시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소설에서 강조하는 도덕성이다. 그래서 명령을 수행하는 ‘전사’는 “단순하다고 할가, 기계적이라고 할가, 그러나 단순한 그만큼 명백했고 반대의 논리가 먹여들 여지가 없”는 인물이다.⁶⁴⁾

이 소설은 북한의 모든 ‘나’에게 “약속 때문이라구요? 난 명령을 받았는데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⁶⁵⁾라는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인민’에게 던지는 그런 방식의 질문은 북한사회에 존재하는 엄연한 위계의 재현이다. 그렇지만 그 재현이 위악적인 것은 그것이 북한에서 살아남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위계는 북한사회의 위계와 정확히 일치한다. 소설 속의 명령은 곧 당의 명령이고, 이 명령에 대한 수행은 북한인민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 명령의 강제집행은 어떤 도덕적 의심도 없이 자연스럽게 자리한다. “명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나’와 전사 사이에 공통되는 언어를 마련한 이 소설에서 문학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감정보다 위압적인 논리로 무장된 공적 가치가 사적 가치를 무화시키거나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한 문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6) 자애로운 어머니, 슈퍼우먼 되기

백철수의 『어제도 오늘도』는 200일전투기간에 생산 증대를 위해 더욱 더 박차를 가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그린 일종의 계몽서사이다. 특히 방직 공장 지배인인 ‘리유갑’이 ‘못된 자유주의빨을 베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아

64) 위의 소설, 281쪽.

65) 위의 소설, 282쪽.

들 ‘동식’에게 거는 불만과 기대가 동시에 교차하는 지점에서 야기되는 사건이 소설의 주요 모티프이다. 이 소설의 주요 서사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동식’으로 대표되는 미래를 담당할 세대에 거는 불만과 기대이며, 다른 하나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2대에 걸쳐 리유갑과 그의 아들 동식에게 구원의 여성으로 등장하는 ‘허민순’으로 대표되는 북한여성에게 거는 바람이다.

주인공 리유갑은 아들 동식이 자신의 대를 이어 방직공장의 훌륭한 기술자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아들은 ‘구름 위에 뜬 생각을 하고 돌아쳐서’ 아버지에게 근심만 안긴다. 그 아들을 허민순이라는 공훈방직공이 자기의 기대수리공으로 데리고 있겠다는 제의가 있자 비로소 구원의 손길을 만난 듯 리유갑은 안심한다. 허민순은 리유갑이 방황하던 젊은 시절에 바로 리유갑을 오늘의 지배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든 정신적 구원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리유갑의 기대와는 달리 동식은 여전히 겉돈다. 그런 동식이 리유갑은 늘 못마땅하다. 특히 견학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동식이 제대로 된 견학 대신 고모집에서 빈둥거리며 ‘자유주의를 부렸다’고 힐문하는 데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에게 동식은 ‘제멋대로 놀아나’는 ‘덜된 자식’, ‘뿔 빠진 자식’에 지나지 않았다. 아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는 아들의 그릇된 행동이 자기뿐만 아니라 ‘허민순’에게도 모욕을 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중첩되어 있다. 허민순에 대한 리유갑의 신뢰와 애정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부자간의 불신은 허민순에 의해 풀린다.

“그럼 어제날의 기대공누이로서 내 한가지 부탁하리오?”

“어서 말씀하십시오. 누님의 부탁이라면야...”

“...”

허민순은 대답대신 품속에서 차곡차곡 개인 종이장을 펼쳐서 리유갑 앞에

내놓았다.

그것은 도면이었다. 공장의 해침공정과 소면, 런조의 공정을 하나로 집약시켜놓은 착안! 아직 도해에 불과한것이지만 거기에는 현존하는 공정들을 뛰어넘은 발전된 방적공업의 미래, 바로 리유갑이 새로운 10만추 정방공장을 일떠세우면서 그려보았던 그 구상이 하나의 현실로 맥박치고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누가 생각해냈는가요?”

“동식이가 했다고요.”⁶⁶⁾

허민순을 매개로 아버지와 동식은 화해한다. 엄밀히 따지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오해가 풀린 것이다. 아버지는 ‘로동계급의 일본새로 동식의 가슴속에 큰 꿈을 키워준’ 허민순의 ‘애바른 마음’에 감격하나, 사실 그 감격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서사는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리유갑과 동식을 매개로 부각되는 허민순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이제 분명해졌다. “어제도 오늘도 진정한 주인으로 살고 있는” 허민순을 통해 ‘로동계급만이 간직할 수 있는 뜨거운 량심’을 드높이는 것이다.

리유갑이 수리공일 때 그의 기대공이었던 허민순과 리유갑이 가까워지는 계기는 리유갑이 고독감에 빠져 모든 것이 ‘썰뚱해져 공장에도 나가며 말며 하던’ 때였다. 리유갑의 고독을 눈치 챈 허민순은 리유갑의 합숙소로 찾아와 빨래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하며 때로는 리유갑이 즐기는 독서를 위해 시도서관에 가서 대신 책을 빌려다 주기도 하는 등 리유갑의 고독감을 채워주었다. 이런 허민순의 지극한 정성과 도움에 힘입어 리유갑은 공업대학을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경험의 리유갑은 아들이 ‘둥 떠서 돌아갈 때’에 허민순이 그 아들을 데리고 있겠다고 자원하여 나서자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된다. 허민순은 리유갑이나 동식에게 훌륭한 정신적 모성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66) 위의 소설, 329쪽.

자애로운 모성의 상징으로 형상화된 허민순은 혈육관계를 벗어난 국가적 단위의 ‘가정’에서 만들어진 여성상이다. 즉 북한이라는 대가족주의의 모성성을 허민순이 체현하고 있는 것이다. 혈육을 넘어서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상은 여성을 혈육적인 모성의 개념과 범주에 국한하지 않고 주체형 공산주의 사회건설의 핵심에 배치하고 활용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만들어진 결과이다. 작품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허민순어머니’라는 호칭은 이런 의도에 부응하기 위해 명명한 소설적 장치이다. 혈육관계의 호칭을 뛰어넘어 대사회적 호칭으로 범칭 되는 ‘허민순어머니’라는 호칭은 국가라는 대가족제도 하에서 북한여성들이 걸어가야 할 임무와 역할을 구획하고 있다.

그런데 자애로운 어머니의 이미지로 그려진 ‘허민순어머니’라는 호칭은 가정을 넘어서 노동의 현장으로 확대됨으로써 일반적인 모성성을 뛰어넘는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원여섯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정을 갖고 노동에 임하는 허민순을 통해 소설은 ‘로동계급’의 전형으로 허민순을 추켜세우고 있다. 이는 북한여성을 가정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에서는 사회적, 국가적 어머니로 위치지음으로써 여성들에게 슈퍼우먼적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북한여성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리유갑의 누이처럼 ‘생활의 잔근심과 세대적인 인정 속에 묻혀버린’ ‘누이형’이며, 다른 하나는 ‘친혈육보다 더 미더운 공장의 기둥’인 ‘허민순형’이다. 전자는 혈육의 감정에 얽매인 사적 관계이며 그것은 곧 변색해버릴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지만 후자는 노동과 계급으로 결속된 공적 관계이며 언제나 변하지 않을 ‘존경과 사랑’을 담보한다.

공적 관계의 모성성을 대변하는 허민순은 모든 북한여성에게 요구되는 여성상의 전형이다. 나이 원여섯에도 뜨거운 열정으로 일상과 노동에서 완벽한 주체적 사회주의 노동자로 형상화되고 있는 허민순은 작은 영웅의 이미지로 포장된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슈퍼우먼이다. 그의 이런 모

습은 혼수 장만에서 더욱 돋보인다. 허민순이 둘째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리유갑은 자신이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특별히 취급’하겠다고 다짐한다. 혼수는 물론이고 ‘고충살림집건설’이 끝나면 특별히 허민순네를 위하여 ‘세칸짜리’로 이사를 시켜줄 요량이다. 하지만 그런 다짐은 허민순에 의해 수포로 돌아간다. 혼인 걱정을 하는 리유갑에게 허민순은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한다.

“응당 할 일을 했는데, 해마다 계획을 넘쳐했다고 안겨준 상품만 가지고도 자식들의 살림을 차려주기엔 넉넉하지요. 그래서 적당히 갖춰주고 제손으로 자기 살림을 꾸려가도록 하렵니다. 그래야 물건 귀한 줄도 알구, 당의 은혜에 보답할줄도 알겠기에...”⁶⁷⁾

위의 인용에는 작가가 전하려고 하는 몇 가지 메시지가 숨어있다. 첫째, 노동자 허민순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칭송이다. 허민순은 해마다 계획을 초과 달성하는 ‘혁명적 노동자’로 부각되며, 이런 모습은 전 북한 여성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 사례로 내면화하기를 노골적으로 강요한다. 둘째, 젊은이들에게 자립심을 가지라고 전언한다. 그 자립심은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애정을 동반할 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당의 은혜에 대한 무한 감사이다. 사실 앞 선 두 가지의 메시지는 여기로 수렴된다. 당은 모든 것의 어머니이며, 어머니의 은혜에 대한 무한 감사는 모든 아들(인민)의 의무이다. 이 의무에는 어떤 불손함이나 불만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북한인민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의 제목이 함축하는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 제목에는 두 가지의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어제’의 아버지와 ‘오늘’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2대에 걸친 허민순으로 대표되는 북한여성

67) 위의 소설, 328쪽.

들의 모성성에 대한 자극과 슈퍼우먼적 역할의 극대화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후북구건설시기에 일궈낸 어제의 성과는 새로운 200일 전투기간인 ‘오늘’에도 눈부신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감격적 소회와 그런 성과가 ‘내일’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주술적 기능이 삼투되어 있다. 이 소설은 이런 의도를 표 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소설답다. 특히 개인의 이익이나 만족을 위하지 않고 공동체적 이익을 위해 성실과 근면을 바탕으로 사적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 혹은 묵시적 강요는 숨은 영웅의 형상화라는 80년대 북한 문학의 중요한 골격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4. 결론

지금까지 『1980년대 단편선』을 텍스트로 하여 노동생산선 향상 및 숨은 영웅 찾기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이라는 주제로 1980년대 북한소설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그것을 다시 세목하여 1) 성실한 노동자상의 전형화, 2) 관료주의 몰아내기, 3) 당원으로 거듭나기, 4) 사랑과 혁명의 어우러짐, 5) 도덕으로 무장된 당의 ‘명령’, 6) 자애로운 어머니, 슈퍼우먼 되기로 살펴본 결과 주체사상에 편승한 항일혁명문학의 구체화로 일관되던 북한문학에서 새로운 양태의 문학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1980년대 북한문학의 방향인 ‘숨은 영웅, 심오한 철학적, 도식주의의 극복’ 등의 지도 지침의 결과이긴 하지만 이전 소설인 항일 혁명이라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영웅적 인물에 비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평범한 영웅들, 즉 숨은 영웅들이 주인공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영웅’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진행되는 사건들도 생활 속의 에피소드들로 채워져 있다. 따라

서 개인의 이상화로 획일화되던 1980년대 이전의 소설이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대 문학과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현실생활을 창작의 공간으로 회복하였다는 의미에서 북한문학의 새로운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새로움도 상당수의 소설들에서 당의 이념이나 지침이 소설 전체를 실루엣처럼 감싸고 있어서 그 가치를 갉아먹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로정법의 『내 고향의 작은 다리』와 『고향의 모습』 등의 소설에서는 감미로운 사랑의 서사가 당, 수령, 명령, 충성 등과 같은 무거운 단어들의 기능적·교조적 측면을 약화시키는 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 현실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1980년대 북한소설이 성취한 결과인 셈이다. 이런 감수성은 ‘북한문학의 역사는 하나의 이야기를 고정된 형식화의 역사였다’고 인정하더라도 1980년대 북한문학이 도달한 균열의 조짐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 이런 감수성은 결국 문체의 문제와 상당 부분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몇몇 작품들에서 뛰어난 서정적 묘사를 통해 그런 감수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몇 가지 점이 1980년대 북한문학이 도달한 현주소였다.

하지만 북한문학의 이런 틈새 확인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북한소설 또한 ‘장군님’의 손바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교조적 문학의 범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 북한소설이 역사주제의 문학이 노정하던 도식주의를 일정 부분 걷어내는데 성공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그들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건 ‘숨은 영웅’이라는 새로운 도식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이상 또 다른 도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1980년대 단편선』, 문예출판사, 1990

2. 단행본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2004, 258-259쪽.

김중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 청동거울, 1999, 34쪽.

박종원 · 최택호 · 류만, 『조선문학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역락, 1999, 여기저기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현대문학편』, 인동, 1988, 314쪽.

사회과학원 문학예술연구소편,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7쪽.

신형기 · 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320쪽.

『조선문학사』(1959-1975),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234쪽.

정홍교 · 박종원, 『조선문학개관』, 사회과학출판사, 1986, 인동, 1988, 여기저기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출판, 1995, 472쪽.

3. 논문

김귀옥, 「1980년대 북한 사회의 발전과 좌절의 기로」, 경남대 북학대학원, 『현대북한 연구』 7권 1호, 2004, 89~90쪽.

김윤영,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혁명문학’의 실체」, 북한연구소, 『북한』 360호, 2001, 163쪽.

남석순, 「북한 소설문학의 출판수용 양상 연구-1980년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회, 『한국출판학연구』 44호, 2002, 173쪽.

신형기, 「남북한 문학과 ‘정치의 심미화」, 김철 · 신형기,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323쪽.

정영철(「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 1967~1982」,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1, 303쪽)

탁용달, 「3대혁명소조운동에 관한 연구-사회, 경제적 변화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 학위논문, 2004, 44쪽.

Abstract

A Study on the North Korean Novels in the 1980s

-Focused on *the Short Stories of 1980s*

Noh, Sang-rae

The North Korean literature in the 1980s differs from the North Korean literature in the 1970s which goes through with individual idolization and from the North Korean literature in the 1990s which is represented as a period of March of Suffering. The North Korean literature in the 1980s which aimed at 'a hidden hero, a profound philosophic feature, an overcome of schematism', and so on, focused on ordinary heroes who can be found in ordinary lives, that is to say, hidden heroes as a protagonist, while the previous novels focused on heroic figures who backed up the theme, anti-Japanese revolution. In the North Korean literature in the 1980s which tried to lead actual lives into a space for creative writing, the creation of hidden heroes is surely a niche which the North Korean literature showed. However, since the guidelines and ideology of North Korea's party were swathed in a fair number of the novels like a silhouette as a whole, it is true that this freshness dropped in value.

Additionally, in the North Korean literature in this period, the narrative of sweet love was weakening the functional · dogmatic aspects of heavy words such as party, the Leader, order, loyalty, and so on. It can be said that this characteristics was an accomplishment of the North Korean literature in the 1980s, going after 'the direction corresponding to the social realities and the needs of North Korean people'.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is sensitivity is also a sign of crack which the North Korean literature in the 1980s reached. Also, some of the works showed an excellent lyrical description, which is an important device of novel which backed up the sensitivity the North

Korean literature showed.

However, despite of the confirmation of the niche of the North Korean literature, since the North Korean literature in the 1980s was also under the category of dogmatic literature not completely away from the palm of ‘the General’, this writer can’t help but point out its limitation. The North Korean literature more or less succeeded in skimming off a certain portion of schematism which the literature of historical theme exposed. However,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a possibility of another scheme’s appearance can not be excluded completely because the new scheme ‘a hidden hero’ is being made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Key-words : Hidden hero, Literature of shaping the Leader, North Korean literature in the 1980s, Military-First period, Bureaucracy, Member of a party, Order, Mother.

노상래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주소 :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전화번호 : 053-810-2120

전자우편 : yunc82@ynu.ac.kr

이 논문은 2011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1년 12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12월 26일 게재 확정됨.